데미샘 지역 하수관로 착공

〈섬진강 발원지〉

진안군, 2019년 12월까지 하수관로 7.1km · 배수설비 157가구 설치

진안군은 지방상수원 상류이자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이 위치한 백운면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사업에 착공했다.

이번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7.1km, 배수설비 157가구, 중계펌프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섬진강 상류의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운면 동창리, 반송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아져 오염물질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된다.

군은 사업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과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안내하고 주민의 견을 수렴하는 등 신뢰받는 소통행정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 내 악취제거와 공중보건위생은 물론 지방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운정수장 취수원인 섬진강 상류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항로 군수는 "데미샘 발원지이자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확충사업을 확대해 지방상수원인 월운정수장에 맑은 물 공급과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아름다운 청정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설 연휴 동파피해지역 비상급수

설천 · 적상지역 4개 마을 · 무주 · 안성 · 부남면 지역 등에 물 공급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무주군의 신속한 대처가 급수대란을 막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2월 13일 당시, 계량기와 관로 동파와 동결 피해는 356건이었으며 이중 344건은 복구를 완료했으나 12건에 대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연휴기간 물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무주군은 사태 파악 즉시 마을단위 물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설천과 적상지역 4개 마을에 급수탱크를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식수용 병물(수돗물 400㎖) 5천병을 공급했다. 또 무주와 안성, 부남면 지역(오지마을) 11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수 지원 차량을 통해 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설 앞두고 수도가 터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급한 대로 물을 공급받아서 한 시름 놓았다"라고 말했다.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연휴 전부터 계속해서 피해 지역과 복구 지역을 돌며 상황 점검과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연휴기간에도 정수장과 취수장, 군 상수도 담당을 비롯한 6개 읍면 사무소에 응급대처 인력 36명을 상주시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과 차량방송, 담당마을 출장을 통해 동파방지 요령을 공유했다.

곽길영 상수도 담당은 "1,2월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19일이나 이어지면서 동파피해가 속출했고 연휴를 앞두고도 복구가 진행 중인 곳들이 있어서 걱정인 상황이었다"라며 "다행히 급수대책이 추진되고 복구도 원활해 다행이었던 만큼 급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도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전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 및 인적역량을 활용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활문화 기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전국 10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농촌 활력거점을 100개소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군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장수사과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특색 있는 연계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등 사과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전담 T/F팀(5개부서 8개팀)을 구성,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사과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장수사과 지역혁신조직을 육성해 연관된 산업과 융복합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예정

장수군은 19~20일 양일간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단체로 관람할 예정이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관람은 장수군 체육단체 관련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컬링과 아이스하키(여자) 등 관심이 덜한 종목을 관람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의 사기 증진과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첫 종목으로 열리고 우리나라 장해지, 이기정 선수가 믹스더블로 출전하여 평창올림픽의 초반 인기 상승의 단초를 마련한 컬링과 남북 단일팀 출전으로 평화올림픽의 상징적인 종목인 여자 아이스하키를 관람함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 군 체육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재난 없는 진안 만들시다'

군, 국가안전대진단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 등 총 758개 시설에 대해 공무원, 시설관리주체, 안전관리자문단, 현장관찰단, 시설물 소유주 등이 참여한다.

이중 중요시설물인 시장, 터미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 기동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 확인 실명제를 적용함으로서 책임성을 부여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 허위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를 위해 14일 장날에 맞춰,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청 광장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및 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오옥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매서운 한파에도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불편해소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옥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2017부터 추진되됐으며, 에너지 절약과 노령가구의 자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목표로 태양광 3KW용량 7시설을 무사히 설치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코마을 조성에 한걸음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9시설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진안군, 이달 말까지 접수

진안군은 이달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특히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무주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19일 선주민 가정 및 이주민 가정 1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나눔봉사단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무주군의 각종 행사에서 다문화가정 공연팀의 행사 참여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에 비하여 행사에 필요한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매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 공백을 해소해 보고자 제 나름의 적재적소의 역할을 위한 활동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역량을 개발시켜 전문자원이 부족한 각종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은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영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선택한 소양교육은 메이크업 교육으로 각종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고비용의 인력을 '나눔의 손길'로 메꾸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및 필수인력의 부재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실현하게 된 것이 주목할 만 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읍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기

무주군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100세 인생 즐기기 어르신 건강교실'은 올 6월까지 관내 21개 경로당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양상모 강사(극단 무주풍경 단원)는 하루 두 시간 씩 악극과 만담(그때 그 시절), 민요배우기 등의 내용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을 사로잡고 있다.

어르신들은 "우리고장에 이렇게 대단한 재주꾼이 있는 줄 몰랐다"라며 "구수한 입담도 좋고 구성진 가락과 춤사위도 정말 대단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1월 25일부터(오후 2시)는 무주읍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정은교의 행복 실은 노래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2일부터는 앞섬체험관에서 매주 목요일 생활체조와 실용댄스를 배우는 '댄스교실'이, 3월 7일부터는 오산마을 전승관에서 매주 수요일 풍물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총무담당(320-5702)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